

10. 중국 문화산업 기지 건설현황(광둥성, 안후이성 등)

- 광둥성 9개 문화산업 시범기지

광둥성 선전시의 9개 문화산업 기지인 화교성그룹, 대분유화타운, 선전신문업그룹, 선전광전그룹, 선전발행그룹, 초상국 과기그룹 크리에이티브 산업단지, 선전 박은개 음반회사, 아창기업(그룹)유한공사, 선전 직업기술학원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설립되었다.

2006년 광둥성 문화체제 개혁의 중점은 문화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문화산업을 크게 발전시키며 중점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문화체제 개혁은 그 지도 사상이 매우 명확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는 바, 이론적, 실천적으로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구분했다. 개혁과정에서 선전 신문업그룹, 선전 광전그룹, 선전 발행그룹 등 일련의 시장주체를 키웠는데 현재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고 있으며 아울러 향후 일련의 시장주체와 문화브랜드가 계속되어 키워지게 될 것이다.

- 안후이성 10개의 성(省)급 문화산업기지 명명

<안후이성 문화산업 계획요강>를 관철하기 위해 문화 대성(大省)전략을 실시하고 모범적으로 점으로 면을 이끌면서 안후이성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추진한다. 2007년 3월, 안후이성 문화청이 강회대극장, 허페이시 안미예술센터, 허페이시 원일시대광장, 영벽현 중국영벽석(어골)국제거래센터, 방부시 남산문화시장, 마안산시 홍빈실크화 수공예품유한공사, 무호시 장강시장원도서간행물시장, 안경시 오천년공예미술유한공사, 동성시 불광동질공예품유한공사, 황산시 돈계옛거리 등 10개 기업과 업체를 제1기 성급 문화시범기지로 명명했다.

금번에 명명했던 10개 문화산업 시범기지는 안후이성 문화산업 관련 부류의 훌륭한 대표 주자들이다. 안후이는 다년간 과학발전관을 견지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추진하며 문화자주혁신을 촉진하고 문화발전의 활력을 높이는 등 동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 장시 경덕진 도자기 문화박람구역

장시(江西)성 경덕진 도자기문화박람 구역은 20세기 80년대 초에 건설되었는데 토지 사용면적은 88만평방미터, 건축면적은 3만평방미터이다. 현재 국가“AAAA”급 풍경구로, 경덕진시 문화국의 관리하에 있다. 박람구역은 수천년 휘황한 역사를 가진 경덕진 고대 자기제조 공예와 고대 도요지, 도자기 민풍민속을 위주로 함과 동시에 특색있는 명칭 고대건축군, 자기비석 장량을 전시하고 경덕진 자기악기공연도 하고 있다.

최근들어 박람구역은 문화관광을 둘러싸고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테마로

풍경구의 기능과 부대시설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서비스의식을 향상시켜 사회효과와 경제효과에서 모두 훌륭한 성과를 이룩했다. 2005년도 5만 여명의 관광객을 받고 경제소득은 지난해에 비해 10.1% 상승했으며 관광객의 신고수리율과 응답율은 100%에 이르러 고객만족율은 95%에 이르고 있다. 당지 청소년의 사상도덕 교육에 일조하고자 2005년 미성년자 5만 여명을 무료로 받기도 했다.

- 칭하이성 오둔러궁 문화예술 타운

오둔(岫岫)러궁 문화예술타운은 칭하이성 동인현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궁예술의 발상지로 유명한 “장화의 고향”이고 탕카를 그리는데 능하여 “탕카타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을에는 446가구의 농민이 있는데 이중에서 러궁예술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437가구로 마을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러궁예술의 매출액은 마을농민들의 주요한 경제원천으로 되고 있는데 오둔 러궁 문화예술타운의 러궁예술품 소득액은 1,000만위안으로 전체 현 농민총소득의 8%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농목민 소득을 증가하는데 리더역할을 하고 있다. 칭하이성 인민정부는 이 마을을 전 성 사회주의 문화 새농촌건설 시범지로 명명했다.

- 다롄시 푸리문화 산업기지의 상황

다롄 푸리문화 산업기지는 푸리문화 전파(홀딩스)유한공사가 투자하여 설립한 것이다. 자주적인 투자를 위주로 하고 저렴한 임대료와 지분참여, 용자 등의 방식을 보조수단으로 국내외의 문화기업이 진출하도록 유치했으며 완성된 문화산업 체인을 형성하면서 다롄 문화산업의 도약식 발전을 촉진했다. 해당 기지는 문화산업 클러스터, 문화물류기지, 문화산업생산기지 등 세개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건축면적은 15.1만평방미터이고 7.47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이미 1.67억위안이 투자되었다. 기지의 발전목표는 2007년 연말까지 입주한 기업이 200개소 이상에 이르게 하고 연간 거래액이 6.5억위안 이상, 이중 출판물 도매와 소매액이 5억위안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예술 크리에이티브회사의 거래액은 1.5억위안에 도달하게 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12억위안의 연간 거래액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중 출판물의 도매와 소매액이 10억위안, 예술크리에이티브회사의 거래액은 2억위안에 이를 전망이다.